

제목 :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2111974 류준하

근대에서 현대로 들어오며 4차 산업혁명이 시작 그리고 발전됨에 따라 인간들의 생활은 날이 지날수록 빠르게 발전 되고 있다. AI와 기계가 발전되면서,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사실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더욱 삶의 질이 높아졌지만, 그만큼 AI와 기계가 많은 인간들의 일자리를 뺏으며 인간은 사회에서 일 할 곳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우리 인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문제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와 기계에 대해 알아보았을 때, 기술이 발전 될 때마다 AI와 기계는 미래 시대에 맞춰 인간의 부족함을 보완하게 발전한다. 인간은 일을 할 때, 많은 실수를 한다. 하지만 AI와 기계는 한번 입력된 작업과 일은 시스템 오류가 나지 않는 이상, 절대 틀리지 않는다. 여기서 오류가 나온다 해도, 다시 올바른 작업을 입력한다면 인간보다 나은 작업속도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은 그에 따른 대비와 준비를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보험, 식사, 휴식 등의 고정적인 지출과 복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법적 도덕적으로 보호 받는 노동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고, 그만큼의 노동과 작업을 할 때, 휴식은 필수적이다. 또한 그중, 수면은 인간의 생명 활동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할 때 기계와 AI라면, 이들에게는 휴식 및 복지가 필요하지 않다. 기계와 AI는 전력공급, 에너지 공급만 있다면 언제든지 생산, 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에게는 보험, 식사 등 이러한 활동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면, 인간이 기계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장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동안 한 일에서 정점에 오른 장인이라도, 실수는 하기 마련이고, 프로그램이 학습된 로봇과 인공지능 보다 속도가 빠르면서 정확할 수는 없다. 그중 예를 들자면, 딥러닝 학습이 된 로봇은 계산 능력에 있어 인간보다 정확하고 연산 속도가 빠르고 같은 시간이어도 인간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발전되는 시대 속에서 과연 인간은 어떻게 일자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아무리 기계와 AI가 성장을 한다 해도,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사실 미술, 음악,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직업은 기계가 인간을 뛰어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기계는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더욱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